

## 제 32장 독서감상문 쓰기

### 1.독서감상문이란

독서 감상문이란 책을 읽고 나서 쓰는 글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요즘은 독서감상문을 쓰기 싫어 책읽기도 싫다는 아이들도 많다고 한다. 그러니 독서감상문을 잘 쓰기 위해서는 먼저 책을 잘 읽어야한다.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주인공과 함께 울고, 웃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을 글로 옮겨 적으면 독서 감상문이 되는 것이다.

그러자면 책을 왜 읽는가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책은 사람이 바르고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따라서 책을 고를 때에는 좋은 책을 골라야 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즐거움과 상상력을 키우게 되고, 역사책이나 동화를 읽으며 내가 직접 겪지 않은 일도 이야기를 통해 경험하게 된다. 또한 무수히 많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도 알 수 있다. 또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생각하는 힘도 기를 수 있게 된다.

독서감상문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책을 잘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쓰기 위해서는 책 내용을 이해해야 생각과 느낌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책읽기도 싫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우니 생각과 느낌이 줄줄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일단 독서감상문을 쓰게 하려면 그것을 왜 써야 하는지를 이해시키고 내용이 쉽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좋다.

독서감상문은 무엇보다 자신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형식이나 내용의 길고 짧음을 얘기하기 전에 아이가 어떤 감동을 받았으며 짧더라도 감상문의 내용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먼저 잘 살펴야 한다.

### 2.독서감상문의 특성

독서감상문은 책 속에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지식과 생각, 그리고 감동을 오래도록 간직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리고 독서를 하며 자기 생활과 비교하여 산지식을 얻게 되고, 생각을 깊이 있게 정리하고 조리있게 쓸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

독서감상문을 쓰기 전에 독서록을 쓰고 그것을 이용해서 쓰게 하면 좀 더 쉽게 쓴다. 그리고 독서감상문은 우선 그 형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 1)편지로 나타내기

일반적으로 글쓰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글쓰기의 방식은 편지이다. 독서감상문에서도 편지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로 감상을 표현할 수 있다.주인공을 실제의 인물로 생각하고 글 속의 내용과 읽을 때 생각했던 부분, 느낌 들을 이용해 쓴다. 다른 사람에게 책을 소개하는 내용이나 책의 내용과 비슷한 경험을 소개하는 내용을 쓸 수도 있다. 또한 책의주제나 내용과 관련있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작가나 출판인에게 보내는 편지도 감상문이 된다.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등장인물이 되어 다른 인물에게 편지 쓰기

2)시로 나타내기

책을 읽은 생각과 느낌을 시로 나타낸다.

3)이외에도 일기문 형식, 생활문 형식, 기행문 형식, 조사보고문 형식, 수필문 형식, 감상문 형식등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

### 3. 글의 갈래별로 감상문쓰기

1)동화와 소설을 읽고 감상문을 쓸 경우

1. 책 속의 등장인물을 바르게 파악한다. 즉 주인공의 성격은 어떠한가? 이야기의 흐름은 어떠한가? 내용은 어떤 흐름으로 끝나는가?
2. 책 내용을 바르게 파악한다. 이 글은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는가? 어떤 깨우침과 이 글에서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 등등을 생각하며 써야한다.
- 3.작가는 누구인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무엇인가?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무엇인가?

2)위인전을 읽고 감상문을 쓸 경우

1. 전기의 주인공을 바르게 파악한다. 즉 어렸을 때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어떤 고생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는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겠는가?
2. 전기의 주인공이 존경받게 된 점을 생각한다. 그 인물이 왜 오늘날까지 존경을 받는지? 주인공이 살았을 때 당시와 오늘날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날 우린 어떤 점을 본받고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그 인물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여 빛을 남기었는가?
3. 새로 알게 된 사실과 역사나 과학은 오랜 세월 동안 차츰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는 것을 생각한다. 또한 역사 속의 훌륭한 인물에 의해 새로운 것이 창조되고 과학은 꾸준한 발견과 발명으로 계속 발전함을 알아야 한다.

3)과학동화나 사전류를 읽고 감상문을 쓸 경우

1.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적는다. 과학동화나 사전 등에서 찾은 내용으로 나는 무엇을 알게 되었나? 찾은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써서 발표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는지 등등을 적는다.

4)수필종류의 글을 읽고 감상문을 쓸 경우

- 1.지은이의 처지는 어떠한가?
- 2.공간적 ·시대적 배경은 어떤가?
- 3.지은이의 바람직한 생각이나 내가 본받을 점은 무엇인가? 또는 비판받을 점은 무

엇인가?

5)시집을 읽고 감상문을 쓸 경우

1.지은이의 시창작 경향은 어떠한가?

2.가장 감명 깊게 읽은 시와 그 이유는? 기억해두고 싶은 시구는 무엇인가

이렇게 내용에 따라 쓰는 방법에 접근하면 독서감상문을 쓰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재미있어질 것이다. 공통점은 글을 읽고 알게 된 것, 생각, 느낌 등이 주가 된다는 것이다.

#### 4. 독서감상문 쓰기의 실제

독서감상문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써야 한다. 대부분 읽게 된 동기와 줄거리를 쓰고 생각이나 교훈 등으로 마무리한다는 틀에 매여 있는 것이 문제인데, 글은 그런 고정관념이 가장 나쁜 영향을 준다. 자연스럽게 내 생각과 느낌이 주가 되게 쓰는 것이다.

**\*\*독서감상문을 쓰기 전에 이야기를 나눠요**

-책을 읽게 된 특별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지은이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 있나요?

-이야기 줄거리는 무엇인가요?

-책을 읽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책의 내용과 내 생각을 같은 점이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전체적으로 느끼고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주인공에게 바라는 점이나 나의 결심은 무엇인가요?

-비판할 점이 있나요?

##### 1)독서감상문의 시작

처음 책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이나 책을 보게 된 동기가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이다. 자연스럽게 감상문을 쓰게 된 동기를 밝히는 것이어서 억지스럽지만 읽으면 감상문의 시작으로 바람직하다. 이밖에도 책 전체의 내용이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소개하거나 작가나 주인공에 대한 소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음을 시작할 수 있다.

##### 1. 책을 읽게 된 동기부터 쓰기

예) 오늘 선생님께서 생일선물로 ‘루이 브라이’ 라는 책을 주셨다. 책 뒤에 동그란 점으로 알파벳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 있는 책이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억지스럽거나 거짓말을 쓰면 안 된다. 숙제를 하기 위해서

또는 선생님이 읽으라고 해서 아니면 우연히 책꽂이를 보았는데 그 제목이 눈에 띄었다는 상투적인 내용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특별한 동기가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쓴다.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부분을 앞으로 끌어내 쓰는 것도 좋다.

## 2. 책 소개부터 쓰기

예) ‘못말리는 종이괴물’은 종이에 그려진 괴물을 물리치는 그림책이다. 책이 만화로 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 3. 책에 대한 첫 느낌부터 쓰기

예) 3학년이 올라와서 처음 읽은 책이 “내작공 최영대”이다. 처음에는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 4. 느낌과 생각부터 쓰기

예) 나는 “화요일의 두꺼비”라는 책이 좋다.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점이 참 좋다.

## 5. 주인공을 부르는 말로 시작하기(편지글로 쓰기)

예) ‘화요일의 두꺼비’를 읽고  
올빼미 조지에게  
조지야, 안녕!

## 6. 직접 주인공의 소개부터 쓰기

예) 엘리자베스 공주는 내가 알고 있던 공주들과는 좀 다르다.

## 7. 작가의 소개부터 쓰기

예) 방정환은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다.

## 8. 생활문이나 수필 형식으로 편안하게 자기의 생각부터 쓰기

예) 세상에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참 많다.

## 9. 작품 중에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화 글을 그대로 인용해도 좋다.

예) “마음을 다해 부르면? 엄마가 온단 말이지?” 이 말은 엄마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던 길손이가 한 말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신의 감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2)독서감상문의 가운데 부분

아이들이 쓰는 가운데 글은 대부분 줄거리를 간단하게 옮겨 쓰고 생각과 느낌 또는 교훈 등으로 마무리한다는 생각에 매여 있다. 독서감상문은 줄거리를 전하는 글이 아니다. 내용과 연관된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읽는 도중 계속 이 주인공은 왜 이럴까? 안타깝다. 이 인물은 정말 너무 했다. 또는 작가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상상한 것들이 중간에 나타나는 것이 좋은 독서감상문이다. 물론 줄거리를 간단히 쓰고 생각이나 느낌을 뒤로 미룰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틀에 얽매이지 말고 읽는 도중에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궁금했던 점들이 자연스레 나타날 수 있도록 써야 한다는 것이다.

**\*\*가운데 부분에 써보세요**

- 책의 줄거리를 자신의 생각과 함께 쓰고 이야기의 주제나 가장 인상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써 보세요.
- 책의 내용에서 나의 생활이나 주변 환경과 비슷한 일을 찾아 관련지어 쓸 수 있다.
- 나와는 다른 생각이나 해결방법에 대해 타당한 이유를 들어 비판하며 쓸 수 있다.
- 특별한 느낌이나 감동, 좋은 표현이 있는 장면을 예로 들면서 할 수 있다.
- 내가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할 수 있다.
- 자기만의 독특한 느낌이나 생각, 새로운 지식이나 교훈을 발견해서 쓸 수 있다.

## 3)마무리

마치 반성문을 쓰는 것처럼 교훈을 얻었다는 등 다음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각오 등으로 써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제 느낀 그대로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으면 그대로 솔직하게, 엉엉 울었으면 그 역시 그대로 써야 한다. 어떤 틀에 글쓰기를 가두면 생각이 자유롭게 나타나지 않아서 글이 부자연스럽다.

**\*\*마무리 부분에 써보세요**

- 책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과 감동을 정리해 나의 생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게 쓰세요.
- 결말과 관련된 주인공들의 행동이나 성격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도 있어요.
- 책의 내용과 나의 생활을 견주어보고 깨달은 점이나 그 책으로 인한 자신의 생각의 변화나 결심을 쓰면서 마무리 할 수 있어요.
- 작가가 이 글을 통해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지 스스로 질문을 해 보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요.

## 4)제목붙이기

독서감상문의 제목은 감상의 중심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지어 큰제목

붙여주고 소제목으로 ‘000을 읽고 나서’라고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학년의 경우 책제목을 중심으로, 고학년은 감상을 중심으로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좋다.

제목은 감상문을 쓰기 전이나 후, 언제든지 붙여도 좋다. 제목을 붙인 후에 글을 쓰면 글의 흐름이 짜임새 있는 글이 되지만 그 밖의 감상은 놓쳐버릴 수도 있고, 제목을 나중에 쓰면 글의 내용이 다소 산만해 질 수 있으므로 아이에 맞게 지도하는 것이 좋다

1책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예) ‘종이 봉지 공주’를 읽고

2.자신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쓰고 그 밑에 작은 제목을 답니다.

예) 용감하고 씩씩한 공주님

-‘종이 봉지 공주’를 읽고-